

## 近世代 東洋三國(韓·中·日)의 都市形成 比較研究

金 善 範

建 築 學 科

(1983. 9. 30 접수)

### 〈要 約〉

都市史研究의 目的은 歷史的 특색의 都市가 現在와 未來의 都市에 水澁하는 바를 透視해 보는 데 있다. 東洋의 都市成長은 西洋과는 달리 機能分化나 都市의 內的 成長이 未洽하였다. 本稿에서는 近世代(1400~1800年代)의 東洋三國(韓·中·日)의 代表的 都市(漢陽·北京·江戶)를 都市成長에 따른 都市空間패턴을 研究하기 위하여 그 都市空間의 形成過程, 形態, 計劃原理등을 比較하여 共通성과 獨自性(傳統性)을 推出하고자 하였다. 比較方法은 發達要因別 比較에 의한 過程의 比較 및 物理的形態의 比較에 의한 結果의 比較를 통하여 이루어 졌다.

結論의으로 東洋三國은 相互影響面에서 古代로부터 同一한 思想의 脈絡을 이어왔으나 近世代이후 各己 獨自의 樣相을 띄게 되었다. 따라서 次後의 都市計劃은 西歐의 技法과 함께 獨自의이고 傳統의인 原理를 調和시키는 思想의 原理가 必要하며 史料의 檢討·蒐集·研究를 통한 都市史研究의 刮目할 進展이 期待된다.

---

## A Comparative Study on the Urban Spatial Formation of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Modern Age

Seon-Beom, Kim

Department of Architecture

(Received September 30, 1983)

### 〈Abstract〉

This paper tries to define the generalities and the particularities of the three major cities—Seoul of Korea, Peking of China and Tokyo of Japan—through the comparative study on their urban formation processes, morphologies and planning principles between the fifteenth and the nineteenth century.

It may be concluded that the three cities share some cognate context in their ancient planning philosophies and they appear to have taken on different paths with the dawn of the Modern Age.

The paper proposes that the modern planning techniques which are based on the scientific rationalism to be supplemented with the traditional values, especially in the case of the future urban planning of Korea.

## I. 序

### 1. 都市史研究의 背景

歷史적으로 볼 때 人類文明의 發源과 그 脈을 같이 한 都市는 人口의 都市集中과 都市化에 따른 都市問題로 陣痛을 겪기 시작하였다. 이 都市問題의 解決을 위해 都市를 하나의 政策科學의 研究對象으로 다루어 왔으나<sup>(1)</sup> 都市 또는 都市學(urbanology)에 대한 概念자체가 追躡한데다 平面的 次元의 都市 研究<sup>(2)</sup>는 多樣하게 追求되어 온 내 미하여 立體的 次元의 研究는 微微한 狀態이다.

都市의 概念과 研究의 性格 및 指向하는 바가 不分明한 狀態에서 어떤 特定分野를 都市研究의 明快的 學問的 正統分野로 認定하기는 어렵지만 結局은 多個의 次元을 共有하는 有機體로서 또는 人間定住의 綜合環境으로서의 都市는 이러한 空間的(平面的·立體的)인 次元問題와 더불어 生活文化의 時間的 變化에 適切하게 對應한다는 點에서 또 하나의 次元 즉 時間的 要素를 看過할 수 없는 것이니 歷史의 흐름과 人間定住패턴의 變化는 都市의 새로운 變形을 要求한다는 理由에서도 都市歷史研究의 常爲 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都市가 歷史的 過程(historical process)이냐 變化는 都市의 本質(essence)<sup>(3)</sup>이라면 歷史的 물속의 都市를 보는 눈이 現在의 都市와 未來의 都市에 示唆하는 바를 都市研究의 歷史的 事實과 豫測을 통하여 投影될 때 恰當한 都市研究의 意義와 方向을 提示하는 절일 것이다.

### 2. 東洋都市의 成長

人類最初의 定居段階에서는 單純한 聚落에 불과하던 것이 農耕社會이 이르러 生産力의 變化로 定住의 形態를 갖추기 시작했고 生産手段의 所有를 통하여 支配階級은 階級으로 사람들이 모여들므로써

都市의 性格을 띠기 시작하였다. 즉 都市의 成長은 어떤 定型化된 要因<sup>(4)</sup>을 가지고 그 度를 더해갔다.

都市成長이라는 면에서는 研究分野나 觀點에 따라 複合的 作用의 產物일 수 밖에 없으나<sup>(5)</sup> 成長과 變化라는 것은 退化(retrogression)가 아닌 進化(evolution)로 본다면 複雜, 多樣, 安定, 相互依存性의 增加<sup>(6)</sup>라는 一律의 成長패턴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複合的 作用을 前提로 하여 볼 때 東洋의 都市와 西洋의 都市는 서로 다른 性格의 成長過程을 갖는다.<sup>(7)</sup> 따라서 眞正한 意味의 都市成長은 計劃的, 物理的 要素는 물론 社會經濟的, 自然地理的 要素사이의 均衡있는 影響이 都市空間이 이루어져서 物理的 形態로 空間化하는 데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3. 研究의 範圍와 方法

東洋의 都市空間을 研究함에 있어 本稿에서는 우선 地域的 範圍를 東洋의 三國 즉, 韓國, 中國, 日本으로 하여 그 中心都市였던 漢城, 北京, 江戶의 세 都市를 주로 살렸고 時間的 範圍는 우리나라의 朝鮮代, 中國의 明·清代, 日本의 明治維新以前の 江戶時代에 이르는 近世代<sup>(8)</sup>로 局限하였다.

研究方法에 있어서는 都市空間의 形成過程과 形態 및 計劃原理를 比較함에 있어 첫째로 發達の 要因을 抽出하는 過程의 比較, 둘째로 物理的 形態를 分析하는 結果의 比較를 통하여 東洋三國의 同時代의 共通性과 獨自性 및 相互關聯性을 檢討하였다.

## II. 東洋三國의 都市發達—近世代—

### 1. 韓 國

#### 1) 都市의 發達과 空間패턴

우리나라는 紀元前부터 中國과 接觸하였을인지<sup>(9)</sup> 古來로 城廓의 築城이 많았는데 三國時代는 물론 高麗,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大部分의 都市는 크고 자

(1) 自然科學에서는 平面的 空間研究를, 社會科學에서는 立體的 空間研究가 主對象이었다.

(2) 都市計劃(urban planning), 都市地理學(urban geography) 또는 都市工學(urban engineering)分野 등.

(3) Blumenfeld, H., 「Continuity and Change of Urban Form」(The Modern Metropolis-Spreiregen, P. B. ed.), Cambridge, The MIT Press, 1971, p.246.

(4) 人口集中, 交易, 地理條件 등의 要因.

(5) 都市經濟構造, 地域空間의 生態的 分析 등.

(6) 宋復 역, 「都市社會學」, 乙酉文化社, 1977, p.251.

(7) 計劃패턴, 都市性格, 都市形成, 強制意識, 街路網패턴 등의 差異로 因하여 都市機能分化的 未治, 內的成長 不爲 等化되었다.

(8) 여기서의 「近世代」나 같은 中世以後의 14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의 概略的 時期로 본 것임.

(9) 中國式的 土城이 最初로 傳來된 것은 漢四郡의 設置(AD 108)로부터 있다.

鄭燦熙, 「都市學 概論」, 一潮閣, 1981, p.30.

은 城壁으로 둘러싸여 城廓을 中心으로 都市空間을 形成發展시킨 城廓都市였다. 이러한 城廓을 基本으로 하여 築城된 都城이나 邑城이 오늘날의 都市로 發展되어 왔는데, 都城의 平面形態는 대체로 軍事의 目的과 風水地理의 思想의 影響으로<sup>(10)</sup> 自然的인 山勢나 江을 이용한 築城이었다. 결국 이러한 背景은 都市空間形成過程에서는 不規則의이고 不均衡의인 空間形成要因으로 作用하였다.<sup>(11)</sup>

이와 같은 過程을 통하여 크게 發展할 수도 있었던 都市가 대체적으로 未洽한 發展에 그쳤던 것은 우선 風水地理思想의 지나친 盲信의 弊害가 컸다. 물론 風水地理思想이 都市空間配置에 있어 미친 影響은 至大하나 都市의 相對的 位置로서의 立地技法에 열매여 그 對的 位置로서의 街路配置技法이나 機能의 配分에 있어서는 密度있는 計劃에 못 미치고 있었다. 그 밖에 都市發達의 阻害要因으로 鎖國政策과 商工業發達의 遲延, 진경한 의미의 封建社會의 未經驗으로 國際的 現實과의 迎合이 不可했던 點, 國土의 地政學的 位置로 因한 東西兩方으로부터의 外侵등<sup>(12)</sup>도 主因으로 볼 수 있다.

### 2) 都市의 立地背景

太祖는 讖緯 侯補地<sup>(13)</sup>를 살피다가 王師 無學의 助言과 衆議에 따라 漢陽을 擇하여 遷都하였다. 漢陽은 立地條件上 優秀한 自然地理的 姿衡地였고 經濟的 背後地를 가지며 防衛에 有利한 軍事的 要地로서 그 地勢를 보면 北에 白岳(北岳山), 南에 南山(木覓山), 西에 仁旺, 東北에 駱山(鷹峯)의 여러 山이 위치하여 天然의 城廓을 이루고 중앙은 滄溪川이 東流하는 盆地를 이루고 南에는 漢江이 城밖의 東南인대를 둘러흐르는 湄으로 이는 陰陽地理나 幽識說에 根據한 延墓思想에<sup>(14)</sup> 의한 定都로서 東洋哲學이 政治社會的 要件을 滿足시키 遷都이래 600年間을 首都로 發展存續하게 된다.

四面이 連山으로 둘러싸여 自然的 城廓을 이룬데다가 山脊을 따라 城이 築造된 閉鎖型 都市로 山城

(南·北漢山城)이 外城의 役割을 하였으므로 全般적으로 自然地形을 適切히 活用하였는데 當時의 城廓은 오늘날의 都市計劃區域과 같은 意義를 지녔다.

### 3) 計劃의 原理와 建設

當時 新都市計劃이나 設計는 高麗代의 南京區劃을 基準으로 하였을 것이나 漢城의 新都營建圖面은 失傳되어 알 바 없으나 施設配置의 原則은 中國 周의 方式인, 國都에서 廟東·社西, 宮闕에서 廟左·社右 즉, 「左廟 右社 前朝 後市」<sup>(15)</sup> 原則에 따라 宗廟를 景福宮·동쪽인 蓮花坊에, 社稷을 景福宮 西쪽인 仁達坊에 配置했고 景福宮前面에 六曹(朝廷, 官衙)를 그 後面에 市廛(市場, 市肆)를 두었다. 宮闕과 宗廟, 社稷등의 施設들은 당시 都市計劃의 核心으로 現代의 新行政首都建設計劃의 基本的 機能配置가 三部의 配置인 것과 같은 概念으로 把握될 수 있었다.

또한 都市의 市街地計劃의 支配의 思想은 風水地理說이었으므로 鎮山(宗山)인 白岳(北岳, 北嶽山)을 중심으로 左靑龍 右白虎를 따라 城을 築造하여 이를 案山인 木覓山(南山)에 連結시켜 都城의 範圍를 決定한 다음 白岳을 背景으로 主宮인 景福宮을 앉히고 副主山格인 鷹峰을 背景으로 呂德宮을 配置한 다음 左廟右社原則에 따라 宗廟와 社稷을 두었다. 이러한 原則의 技法은 前述한 바와 같이 古代 中國에서부터 지켜지던 原理로서 우리나라는 물론 日本도 初期都市에는 이 影響을 받았다.<sup>(16)</sup>

그러나 이러한 主機能配置는 그 原則에 充實할 수 있었지만 市街地劃定에까지는 미치지 못한 것은 中國과는 다른 地形的 差異 때문이었을 것이다. 또한 中國의 많은 都城이 天體의 星座에 따라 이에 照應하여 計劃되었음에 비하여 이의 影響을 받은 우리나라도 實際 어떤 結果가 있었을지하다는 一研究<sup>(17)</sup>는 東洋의 天體思想이 都市建設에 關關되었을 것이라는 計劃理念과 함께 注目을 준다.

街路網 構成에 있어서는 宮闕, 官衙와 商街를 中

(10) 이이 新羅代에 國土全體의 地德吉凶을 風水의으로 考察하는 國土風水가 있었음.

孫祖謙, 「風水地理說이 우리나라 都市形成에 미친 影響에 關한 研究」, 都市問題 87號, 1973. 11. p. 68.

(11) 金炯萬外, 「韓國 城廓都市의 發展과 空間배턴에 關한 研究」, 大韓國土計劃學會誌(17-1), 1982. p. 39.

(12) 金儀遠, 「韓國國土開發史研究」, 大學圖書, 1983, pp. 322-334.

(13) 漢陽, 鷓龍山, 母岳 등.

(14) 黃鏞岡, 「都市計劃論」, 未來產業社, 1982, p. 39.

(15) 中國의 古典 「周禮」中の 冬官(考工記)에 의한 都城의 機能配置方式으로 이 手法은 高麗代에서도 쓰여졌음.

(16) 「考工記」에 의하면(丁茶山의 經世遺表) 國家首都建設에는 전체를 9區域으로 나누어 中央을 王宮, 前面을 朝廷(六曹), 後面을 市場으로 했으며 左右 6鄉이 둘러 싸우르게 하였다고 하며 1鄉은 9로 區分되어 聚라 하고 다시 1聚를 9로 나누어 闕라하였는데 1區를 1墟(단)으로 한 것은 王宮이나 特殊官署이고 私宅들은 1區를 다시 4, 9, 16, 25, 36, 49, 64, 81, 100 등으로 나누어 中에서 壬等까지 모두 9등이 된다고 하였다. 이 경우 最大單位數地面積은 48,400坪의 王宮宮地이고 最小單位面積은 壬等의 484坪이다.

(17) 金儀遠, 前揭書, pp. 107~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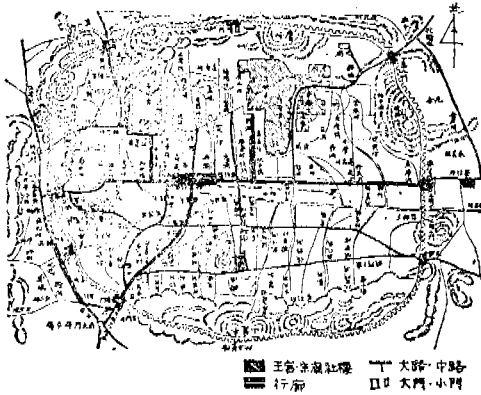


그림 1

心으로 計劃되어 宮闕正面에서 南쪽으로 大路가 놓이고 宮闕앞에서 東西로 宗廟·社稷으로 통하는 道路가 幹線을 이루었다. 「經國大典」에 의한 道路基準은 大路(56尺: 17.5m), 中路(16尺: 5m), 小路(11尺: 3.4m)가 있고 道路 兩側에 各 2尺(60cm)의 側溝도 設置되었다.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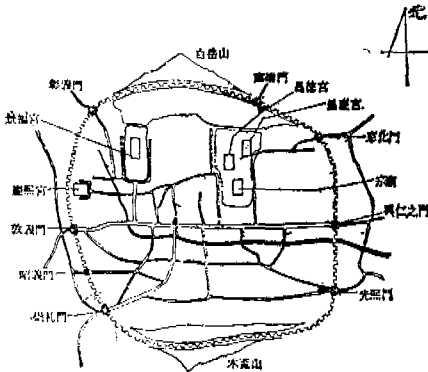


그림 2

一般의 住居地域으로는 當時의 身分制度에 의하여 北村(清溪川 北쪽)과 南村(清溪川 南쪽)으로 나누어 北村에는 官吏와 兩班階級의 宅地이고, 南村은 一般庶民의 宅地였으며 用途地域自體가 建都原理에 立脚한 것이었으므로 多様な 都城内部의 空間構成은

機能賦與의 限界性으로 事實上 不可能한 것이었다.

都城全體의 輪郭은 城周圍에 人工的인 濠(moat)가 없이 自然地勢대로 形成되었는데 漢城의 城內面積은 16.3km<sup>2</sup>이고 都城길이 17km, 城壁밖의 10里地域 즉 城底十里까지의 面積은 管割區域의 擴張에 따라 一定하지 않다. (19)

本格的인 漢城의 都市建設은 太宗朝에 主要幹線道路를 整備하고 市廛을 세워 商街를 形成했으며 排水를 위한 開川(清溪川)의 開鑿도 행하여 졌다. 이렇게 政治, 軍事, 行政의 中心이던 漢城의 中心部 主要街路網은 格子型 바탕이나 自然發生的인 不規則 曲線路가 많아 中國과 判異하였고 主要道路의 路端에는 景福宮, 昌德宮, 慶熙宮, 南大門, 東大門이 놓여 路端景(terminal vista)을 形成하였다. (20)

都城內의 모든 地地는 國有原則이었고 當時人口는 初期에 10萬(一時 4~8萬이었던 때도 있었음), 中·末期에는 18~20萬程度였다. (21)

## 2. 中 國

### 1) 中國의 都市發達

中國의 都市는 그 文化와 함께 黃河流域에서 發生하여 揚子江流域과 그 以南으로 擴張하여 갔다. 桀부터 殷·周의 都市國家에서 隋·唐代의 統一國家形成까지는 黃河流域이 그 核心的 地域이었으나 11世紀以後 經濟中心은 揚子江流域과 그 以南으로 南下하였다.

中國은 文明發祥이후 近代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社會·經濟體制가 存續하였는데 (22) 中國의 封建制는 西歐의 意味의 封度制(feudalism)와는 다소 差異가 있기는 하지만 後期에는 奴隸制가 消滅되어 갔고 土地私有가 認定되었다. 또한 大規模의 道路交通網과 水路網등의 公共土木事業은 일으켜 中央集權化가 強行되었으나 內的으로는 分裂과 統一의 連續이었다. 中國社會의 基本構造가 오랜 期間을 큰 變化없이 存續해 왔는데 比하여 技術이나 人口의 增加(明代에는 約 6千萬, 清代中期에는 2億, 清代末期에는 4億) (23)와 生産, 富의 集積등은 比較的 큰 變化를 보

(18) 尹張燮, 「韓國建築研究」, 東明社, 1983, p. 178.

(19) 1918年 朝鮮總督府의 臨時七地調査局編 「朝鮮地誌資料」는 約 36km<sup>2</sup>로 보았고 市廛特別市史의 資料는 約 24km<sup>2</sup>로 보는 등 混線을 빚는다.

(20) 尹張燮, 前掲書, p. 177.

(21) 孫禎臨, 「李朝時代의 都市規模와 그 國際比較」, 都市問題 98號, 1974. 10, p. 102.

盧祐勳,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82, p. 337.

姜大玄, 「都市地理學」, 教學社, 1981, p. 75.

(22) Needham은 2개의 封建制, 즉 原始封建制(B. C. 1500~B. C. 221)와 官僚의 封建制(B. C. 221~1911, 清朝까지)로 보았다.

(23) 「世界文化史大系」, 大學堂, 1979, p. 323.

었다.<sup>(24)</sup>

또한 農業生産力의 增大과 政治中心地와 經濟中心地의 分化로 江南地方의 人口集中과 地域市場(市集, 墟市)의 發達, 地域市場의 大都市와의 連結등이<sup>(25)</sup> 都市發達의 內的 要因이 되었다.

明太祖는 金陵(南京)을 中心으로 勢力을 擴大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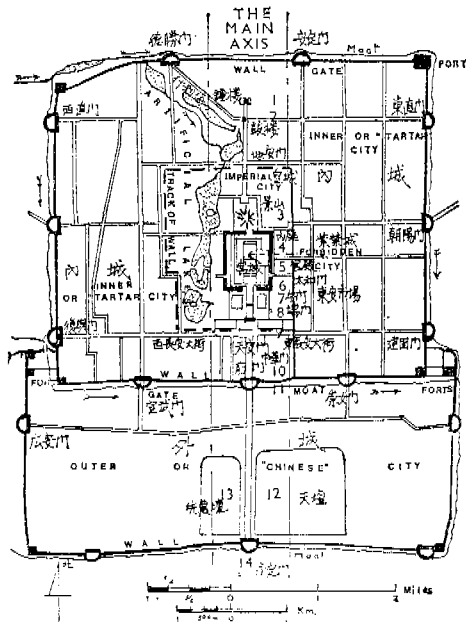


그림 3

大都(北京)를 占領하여 中國 全土를 統一(1371年) 하였는데 以後의 成祖 永樂帝는 北京으로 遷都(1420年)하고 南의 經濟中心과 北의 政治中心을 連結하기 위한 大運河 建設에 着手하였다.

한편 北方民族의 支配時代인 清朝는 遼陽, 瀋陽(盛京), 北京으로 이어지는 遷都였지만 明代의 都市의 建築文化를 그대로 繼承하여 그 變化는 微微하였다.

## 2) 中國都市形成의 原形

中國의 都市는 대체로 單純하고 普遍的인 特性을 가진 徐行的 變化였으나 瞭然한 어떤 原則에 따라

都市空間을 形成해 나갔다. 이러한 計劃과 設計의 原理를 支配한 것은 中國의 大陸의 地理條件과 傳統의인 風水思想에 의한 自然觀의 形成과 傳統의인 屬性的인 獨自의 中心思想이었다.<sup>(26)</sup> 따라서 都市空間의 形成技法에 있어서도 뚜렷한 思想의 背景이 存在하였으며,<sup>(27)</sup> 風水와 山水는 計劃上의 最優先條件이었기 때문에 이 나라의 傳統의이며 古典의인 都市計劃은 반드시 南側에 面한 前面을 가지고 南北軸上에 計劃하는 一貫된 體系에 따라 必然의 結果를 가지오는 그런 計劃이었다.

이런 意味에서 北京은 中國의 都市形成의 原則이 가장 잘 지켜진 典型的인 都市였는데 그 空間計劃의 原則이란<sup>(28), (29)</sup> (1) 周圍를 城壁으로 둘러싸고, (2) 南北의 中心軸을 가지고 있으며, (3) 南向의 配置, (4) 直線道路를 가진 格子패턴, (5) 多數의 廣場, 庭園 및 오픈 스페이스, (6) 낮은 建物과 樹林 塔婆에 의한 스카이라인, (7) 文化的인 記念性(monumentality)등을 일컫는데 壯大하고도 精巧한 計劃原則이었다.

古代로부터 中國의 都市는 城壁都市였고(長安城, 洛陽城등) 城壁(wall)과 都市(city)는 같은 말로서 都市計劃이 「城市規劃」이나 「城市計劃」으로 불릴만큼<sup>(30)</sup> 都市의 形狀은 城壁으로 圍繞되어 있었다. 重要한 都市內 建築物도 恒常 南과 北을 잇는 線上에 配置되었고 各各 中庭에 面하며 南向이었는데 南向은 分明히 機能的인 理由에서도 그렇지만 同時에 古來로 祭祀儀式과 天地에 祈願하는 儀式과의 關係에서 神聖視되고 慣習화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都市의 街路網은 全體가 하나의 長方形의 格子패턴이었으며 主要道路는 南北方向으로 놓이는 것이 典型이었고 主要門은 南側城壁의 中央에 놓이는 것이 原則이었다. 이러한 原則은 또한 地勢나 規模에 따라 適用되었으나 하나의 房에서부터 都市에 이르기까지 統一된 全體性을 가지고 構成되었으며 庭園이나 公園 또는 人工의 景觀의 平面計劃까지를 支配한 原則이기도 하였다.

(24) 中國의 文明과 都市의 變化를 그 保守性보다는 連續性으로 보는 理由가 된다.

(25) 岡斗基外, 「東洋史講義要綱」, 知識産業社, 1981, p.75.

(26) 中國古來의 建築에서도 完備히 지켜져왔던 이러한 原則은 孔孟思想의 傳統의 影響과 大陸의이며 獨自의인 中心思想이 基礎를 이루었다.

(27) 中國의 都市計劃은 西歐의 意味의 technical planning이 아니라 philosophical exercise로서 西洋의 都市計劃이 technique라면 中國의 그것은 exercise였다. 「Encyclopedia of Urban Planning」 Whittick, A., (ed.), McGraw-Hill, 1974, p.251.

(28) Whittick, A., (ed.), op. cit., p.257.

(29) Boyd, A., 田中談譯, 「中國의 建築と都市」, 鹿島出版會, 1979, 東京, p.21.

(30) 郭中端外, 「中國의 街づくり」, 相模查房, 1980, 東京, p.28.

## 3) 中國都市空間의 特徵과 建設

都市의 廣大性, 藝術性, 記念性, 中心性으로 要約될 수 있는 中國都市의 特性과 中國인이 가지고 있는 補完의 哲學<sup>(31)</sup>이 都市空間을 形成하여온 基本이었다. 前述한 都市計劃의 原則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都市가 北京인데 이 典型的인 中國의 城廓都市인 北京이 比較的 現在와 같은 形態로 만들어진 것은 明清代였다.<sup>(32)</sup> 그것은 自然的인 成長이었기 보다는 數次에 걸친 改造였다.

中國의 都市는 우리나라의 이 時代 都市와 같이 城壁으로 둘러싸여 있는 城廓都市로서 「周禮」의 「考工記」에 의한 都城築造方式<sup>(33)</sup>과 王宮을 北邊 中央에 두는 方式<sup>(34)</sup>의 두 가지 方式의 平面配置가 있었는데 前者의 方式은 方形이나 長方形의 城城으로 中外部에 王宮과 官衙를 두고 格子街路網을 構成하는 形式으로 「左祖 右社 前朝 後市」의 原理에 따랐다.

北京의 平面形態는 明瞭하여 城壁으로 둘러싸여진 4個의 主要部分으로 되어 있는데 南側의 外城, 北側의 內城, 內城안의 皇城, 皇城안의 宮城(紫禁城)이 그것이며 그 南左側에 太廟를, 右側에 社稷壇을 두었다. 外城, 內城, 宮城의 周圍에는 濠(moat)가 둘러져 있고 主要建物은 外城의 南門에서 內城의 北門까지 南北軸上에 세워져 있다. 또한 人造山과 湖水를 만들어 山水의 造景을 하고 皇城 北쪽에는 市場을 두었다. 都市設計의 主要素는 城壁과 連의 建物로 이루어지는 空間의 流線帶, 中心部로의 進入등이었다.

北京城의 概略의 規模는 外城의 南門에서 北쪽의 城壁까지는 約 8km이고 內城의 폭은 25km, 全體(內城과 外城) 面積은 約 63km<sup>2</sup>로 이 中 皇城은 約 5.9km<sup>2</sup>이고 宮城은 約 1km<sup>2</sup> 정도였다.<sup>(35)</sup>

이렇게 보면 結局 中國의 都市配置는 周圍에서 內部로의 發展·展開에서 現代都市의 發展樣과와는 正反對였다고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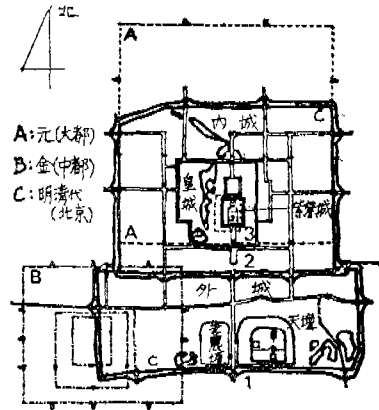


그림 4

## 3. 日 本

## 1) 日本都市의 形成과 發展

日本의 都市를 研究함에 있어서는 日本特有的인 韓國과 中國이 經驗하지 못한 封建制의 地方分權의 形態에 우선 關心을 가져야 한다. 日本은 河川이 짧고 큰 平野가 없어 大規模의 治水事業도 必要하지 않았는데 國土가 많은 小規模의 地域單位로 分割되므로써 地方分離主義의 發生을 促進하게 되어 中世 封建制度의 發達에 寄與하였다. 많은 武上階級이 江戸(東京) 또는 城下町<sup>(36)</sup>(地方首都)에 集中함으로써 農村地域은 相當한 自治가 確保되었고 하나의 經濟單位로 統合되었다.

日本의 都市가 一般的인 形成을 보인 것은 15, 16世紀였다. 이 時期는 日本史上 中世社會의 後期, 즉 戰國時代로서 都農間의 特化現象이 두드러진 때였다. 當時의 京都는 經濟의 中心地로 成長하였고 大名(다이묘)의 據點인 城下町과 流通路의 要衝地인 港町(港口都市), 宿場町(宿泊都市), 寺院의 境內에 세워진 寺内町(寺院都市)등이 形成되었다.<sup>(37)</sup>

日本의 戰國時代以前의 大名의 城은 대개 山이나 江에 둘러싸인 要塞地에 築造하였으나 16세기에 들

(31) 儒敎의 秩序(孔子의 社會의 秩序)와 道敎의 無秩序(老子의 個人的 無秩序)

(32) 姜大玄, 前掲書, p. 57.

(33) 周의 洛陽城, 殷의 鄭州城과 中世以後의 北京城 등.

(34) 唐의 長安城, 渤海의 上京龍泉府址 등.

(35) Boyd, A., op. cit., p. 75.

Gallion, A. B., Eisner, S., 「The Urban Pattern」 (4th ed.), D. Van Nostrand, 1980, p. 15.

(36) 中世代以後 形成된 것으로 「城下都市」, 「城 밑 마을」이라고도 함.

(37) 町(나카)라는 것은 都市共同體인 自治組織의 基本單位로서 都市가 發達함에 따라 町→町組→惣町로 組織되었다. 高橋卓八郎外, 車泰錫外譯, 「日本近代史論」, 知識産業社, 1981, p. 74.

이 城의 場所나 形態가 바뀌어 戰爭보다는 統治에 便하도록 平地에 築城하게 되었고, 이 周圍에 武士나 商人들이 모여 都市(城下町)를 形成하게 된 것이다. 따라서 都市立地는 軍事, 商業 및 交通條件 등을 考慮하게 되었다.

2) 城下町의 發達

近世代的 日本都市들은 城下町에서 出發하였는데 그 原型은 中世豪族이나 領主의 城이었다. 또한 이 城下町은 크게 두 가지의 中心性格 즉 軍事·行政的 中心으로의 「城廓」과, 社會·經濟的 中心으로의 「町」을 가지고 있었는데(38) 城下町의 都市의 要素를 살펴 볼 때 軍事的 據點, 政治的 中樞로서의 城下町은 「城廓」이요, 加工流通機能, 宗教的 中心, 軍需品 生産등의 要素는 「町」이었다.

城下町 成立의 社會·經濟的 基礎이 成立된 것은 一元화된 領國支配體制가 兵農의 分離를 克服함으로써 領主의 農民支配體制가 確立되어 初期에는 都農間의 社會的 分業이 不明確하였으나 近世대에 접어들면서 農村과 城下町은 明確히 區分되어 갔다. 이 時代의 封建的 階級社會構成은 身分別 住居地域制라는 形式으로 空間化하였는데 차츰 身分秩序가 確立됨에 따라 宅宅에서 都市空間에 이르기까지 뚜렷한 境界로 區分되었고 城廓을 中心으로 武士, 商人, 職人, 賤民의 順으로 配置되었다.(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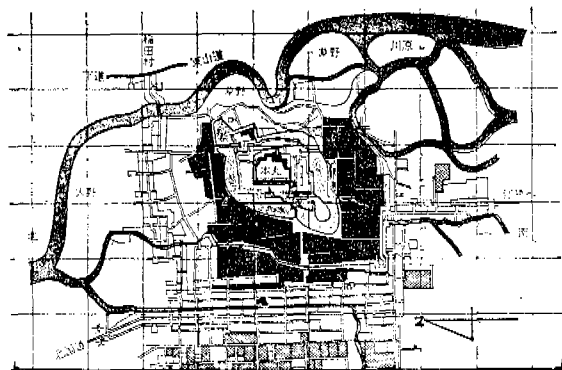


그림 5

이 城下町에도 中國과 같이 城廓周圍에 防衛目的의 環濠를 두었는데 都市全體를 둘러싸지는 않았다

는 點이 西歐나 中國의 都市와의 差異라 할 수 있다. 道路(40)도 이러한 防衛目的으로 攻撃보다는 防禦에 有利하도록 複雜한 패턴(五字形 패턴)(41)이 代表적이었는데 近世대에 들어와서는 中世와는 달리 軍事的 目的 以外에 商工業的, 交通的 目的도 附加되었다.

結局 城下町計劃의 特徵은 防禦用 水系の 利用, 複雜한 道路網, 嚴格한 身分別 住居地域制(42)로 要約될 수 있다.

日本都市史上 이 時代의 城下町은 中世와 같이 主로 戰亂時에 建設되었는데 이는 獨立된 都市의 建設이 아닌 築城計劃의 一部였다.

城下町의 全體計劃은 明確한 視覺的 패턴은 없으나 都市要素와 都市活動의 體系와 相互關係로 보던 位相幾何學的 計劃(typological planning)(43)으로 城廓을 中心으로 그 周위에 武家町을 配置하고 幹線道路邊에 建物を 配置하는 計劃原則이었다. 이 밖에 商職人町은 都市를 貫通하는 都市間 道路에 따라 配置하였고(經濟機能上), 賤民町은 가장 낮은 身分으로 市域의 末端이나 準市域에 配置하고 市域이 擴大되면 더 外郭으로 移動하였다.

3) 江戸의 都市空間構成



그림 6

明治維新 以後 東京으로 改名한 江戸는 18世紀 日

(38) 『建築學大系(2)』, 彰國社, 1975, pp.157~158.

(39) 이러한 身分別 住居地域制는 西歐의 概念인 同一階級の 集合으로 된 地域制(zoning)와는 差異가 있었다.

(40) 道路幅은 大部分 1間半~4間(4.5~12m)으로 좁았고 江戸의 主要道路만 寬었다.

(41) 都市デザイン研究會, 『現代の都市デザイン』, 彰國社, 1977, 東京, p.35.

(42) 城廓中心의 zoning과 身分에 基礎한 grouping의 特徵이다.

安元泰外, 『都市計劃資料集』, 三友出版社, 1982, p.10.

(43) 『建築學大系(2)』, 前掲書, p.166.

本最大의 都市로<sup>(44)</sup> 그자의 封建都市들이 近代都市로의 成長過程에서 都市의 擴散(sprawl)과 繼續되는 大火災, 身分別 住居地域制의 瓦解 등으로 인하여 變質되어 갔는데 江戶는 1590年 德川家康에 의해 江戶城의 城下町計劃이 着手되면서 都市의 面貌를 갖추게 된다.

江戶의 中心은 江戶城으로 廣大한 大名領國經營의 中心으로 適合하였는데 建設時期는 크게 들르 나누어 第1期는 1590~1600年, 第2期는 1603~1635年 사이였다. 第1期의 計劃目標는 關東領內의 首都建設에 있었다. 城廓工事는 中心의 丸(本丸)工事로 시작하여 西쪽의 丸(西丸)이 建設되었다. 第2期는 幕府의 所在地로의 役事있는데 비번의 大規模工事를 行하였다. 大名을 勤員, 山을 埋立하고 新市街地를 造成하였으며 水路와 船着場工事등을 하였고 外廓과 內廓은 分離하여 行政 및 軍事의 中心으로 삼았으

며 城內는 4區城으로 나뉘었다. 螺旋形의 도랑과 外城門으로 連結되는 平面으로 城가까운 쪽에서부터 大名, 町人의 順으로 割當하였다. 武士들의 土地를 占싸고 商人들의 土地를 中心가까이 配置하여 經濟活動을 武家の 消費生活에 關聯지어 計劃하였으므로 都市發展을 考慮한 都市構成이었다.

### Ⅲ. 三國의 比較

#### 1. 都市發達의 過程의 比較

都市發達의 過程을 比較하기 위하여 發達의 要因을 自然的인 要素와 人文的인 要素에 焦點을 두어 ① 地理與件, ② 自然觀, ③ 自然利用, ④ 政治·社會體制, ⑤ 經濟構造등의 因子를 抽出<sup>(45)</sup>,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比較因子	韓	中	日	
自然的要素	地理與件	· 半島的	· 大陸的	· 島嶼的
	自然觀	· 自然에 順應· 歸依	· 大陸的 自然觀(風水) (傳統思想의 淵源)	· 自然觀照的 (思想的 緣由없음)
	自然利用	· 積極的 利用	· 大體的 利用과 改造	· 消極的 利用
人文的要素	· 身分階級社會→이에 따른 住居地域區分			
	政治社會體制	· 封建制의 未備	· 官僚的 封建制 (中央集權體制) →自治의 性格缺如	· 集權的 封建制 (大名領國體制)
經濟構造	· 前産業型	· 現代資本主義의 基礎 · 貨幣經濟	· 經濟中心의 都市化 · 共農分離	
	· 土地 國有 →身分에 따라 貸與	· 土地私有的 部分的 認定	· 二重 所有構造 →封建的 土地所有形式	

#### 2. 都市形態의 結果的 比較

都市形態의 結果를 比較하기 위하여 物理的 要因을 크게 세 가지, 즉 計劃的 要素와 形態의 要素 및 空間的 要素에 焦點을 맞추었다. 이렇게 볼 때 計劃的인 要素로는 ① 計劃原理와 原則, ② 原則의

變容, ③ 計劃의 特徵, 그리고 形態의 要素로는 ④ 都市形態, ⑤ 道路網에 따른, 空間的 要素로는 ⑥ 都市空間의 形成, ⑦ 都市景緻, ⑧ 廣場, ⑨ 都市變化에의 對應등의 諸因子를 抽出할 수 있는데 이를 比較해 보면 다음과 같다.

(44) 德川時代 江戶의 人口는 約 100萬이었고, 大阪, 京都가 20~50萬, 金澤, 名古屋, 岡山등의 城下町은 5~10萬이었다. 矢崎武雄, 「日本都市의 發展過程」, 弘文堂, 1962, 東京, p. 133.  
(45) Childs가 定義한 10個 基準에 의하면, ① 都市의 크기, ② 都市의 構成과 機能, ③ 剩餘產品의 處理, ④ 記念的 公共建物, ⑤ 身分階級, ⑥ 文書記錄, ⑦ 科學의 發達, ⑧ 藝術的 表現, ⑨ 貿易, ⑩ 地域社會등으로 分類하였다. Childs, V. Gordon, 「The Urban Revolution」, The Town Planning Review 21, 1950, pp. 3-17.



比較因子	韓	中	日	
計劃的要素	計劃原理과 原則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古代 中國의 技法原理(風水地理)</li> <li>· 機能配置는 「左祖 右社, 前朝 後市」原則</li> </ul>		
	原則의 變容	· 地形에 따라 部分的 變容	· 大部分 平地立地여서 原則에 充實하고 變容이 거의 없음	· 古代都城은 完全 變容이나 以後 獨特한 變容
	計劃의 特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中國式 機能配置</li> <li>· 風水地理의 絶對的 受容</li> <li>· 中心性 強調</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廣大性, 記念性</li> <li>· 圍繞, 南北向</li> <li>· 中心軸 強調</li> </ul>	· 城下町으로 發展(住居地域制, 水系의 利用과 道路網—zoning & grouping)
形態的要素	都市形態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閉鎖形 城廓都市</li> <li>· 不規則形</li> <li>· moat 거의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方形(幾何學的)</li> <li>· moat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不規則形</li> <li>· moat 있음</li> </ul>
	道路網패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格子形 바탕의 自然發生的 不規則曲線路, 迂迴路</li> <li>· 東西 主要幹線網</li> <li>· 南北 主要幹線網</li> <li>· 尺度考에 의한 地割</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正然한 格子形패턴(大規模)</li> <li>· 南北 直線 主道路</li> <li>· 4四大城門이 幹線道路의 起終點</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格子形 原則이나 直線化 하지 않음(五字形 패턴)</li> <li>· 小路가 많은(江戶 除外)</li> <li>· 町割로 道路構造를 決定</li> </ul>
空間的要素	都市空間의 形成	· 自然的 圍繞空間(天然의 城廓形成)	· 人爲的 圍繞空間(人爲的 方形城廓形成)	· 複合的 圍繞空間(天然城廓과 人爲城廓)
	都市景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都市美觀構成要素(城廓, 建築物, 寺廟, 市廳등의 要素)</li> <li>· 路端景構成要素(宮과 大門)</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格子形의 整然美</li> <li>· 壯大精巧</li> <li>· 低層建物和 樹林, 塔婆의 스카이라인</li> <li>· 多數의 open space</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明確한 視覺의 패턴은 없음</li> <li>· 借景의 手法 使用</li> <li>· 街路의 vista는 山을 背景으로 함.</li> </ul>
	廣場	· 本格的 廣場은 없으나 廣場의 小空間形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大廣場(大規模道路)</li> <li>· 造園과 調和</li> </ul>	· 西歐式 廣場은 없으나 廣場의 性格의 空間(寺院境內, 河川岸)
	都市變化에의 對應	· 劃一的 傳統性으로 外的變化에 대하여 自閉的임.		· 變化에 適切히 對應(內包的 變質)하는 空間

IV. 結

1. 三國의 相互影響面

近世代的 東洋三國은 相互影響面에서 古代에 思想의 脈絡을 같이 하고 있으나 以後 各已 受容 및 變容의 過程을 기치면서 獨特한 樣相을 띠게 되었다. 즉 韓國과 日本의 都城은 中國의 影響을 크게 받았으나 韓國은 自己 自由로운 變形의 려한 自然的 計劃形이었다면 日本은 硬直된 變形이었다면 西

歐의 技法에 쉽게 迎合한 變容의 計劃形이었고 中國은 지나친 幾何學的 都市配置였던 廣域的 計劃形이었다.

2. 思想의 原理의 必要

韓國의 都市空間構成이 全部 中國의 都市의 같이 一律的으로 形成된 것이 아니라 自然地勢를 活用, 自然에 順應하고 調和하는 都市構成은 傳承에 나가야 할 構成的 傳統인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傳統의 原理의 西歐의 技法의 模式이 아닌 獨自的인 思想의 原理가 必要하게 된다.

### 3. 現代 都市計劃에의 示唆

都市歷史研究는 前述한 바와 같이 歷史的 事實을 比較檢討하여 未來를 위한 示唆點을 發見하기 위한 發展的, 創造的 豫測의 第1步이다. 따라서 都市形成의 諸般要因을 歷史的 過程과 結果를 通하여 抽出하고 그 空間的 性格을 究明하는 作業은 現代 都市計劃分野의 研究對象이 되어야 하며 未發掘된 史料의 整備, 分析을 必要로 한다.

### 參 考 文 獻

1. 姜大玄, 「都市地理學」, 敎學社, 1981.
2. 金儀遠, 「韓國國土開發史研究」, 大學圖書, 1983.
3. 金炯萬外, 「韓國城廓都市의 發展과 空間패턴에 관한 研究」, 大韓國土計劃學會誌 (17-1), 1982.
4. 盧椿熙, 「都市學概論」, 一潮閣, 1981.
5. 閔斗基外, 「東洋史講義要綱」, 知識產業社, 1981.
6. 孫禎暉, 「風水地理說이 우리나라 都市形成에 미친 影響에 관한 研究」, 都市問題 (87號), 1973.
7. 孫禎暉, 「李朝時代의 都市規模와 그 國際比較」, 都市問題 (98號), 1974.
8. 宋 復譯, 「都市社會學」, 乙酉文化社, 1977.
9. 安元泰外, 「都市計劃資料圖集成」, 三安出版社, 1982.
10. 尹張爻, 「韓國建築研究」, 東明社, 1983.
11. 韓治勛, 「韓國通史」, 乙酉文化社, 1982.
12. 黃鏞罔, 「都市計劃論」, 未來產業社, 1982.
13. 世界文化史大系(7), 大學堂, 1979.
14. 高橋幸八郎外, 車泰錫外譯, 「日本近代史論」, 知識產業社, 1981.
15. 郭中端外, 「中國の街づくり」, 相模書房, 1980.
16. 都市デザイン研究體, 「現代の都市デザイン」, 彰國社, 1977.
17. 矢崎武雄, 「日本都市의 發展過程」, 弘文堂, 1962.
18. 建築學大系(2), 彰國社, 1975.
19. Blumenfeld, H., 「Continuity and Change of Urban Form」, (The Modern Metropolis, Spreiregen, ed.), MIT Press, 1971.
20. Boyd, A., 田中談譯, 「中國의 建築と都市」, 鹿島出版會, 1979.
21. Childe, V.G., 「The Urban Revolution」, The Town Planning Review(21), 1950.
22. Gallion, A.B., et al., 「The Urban Pattern」 4th ed. D. Van Nostrand, 1980.
23. Morris, A.E.J., 「History of Urban Form」, 2nd ed., John Wiley & Sons, 1979.
24. Whittick, A., (ed.) 「Encyclopedia of Urban Planning」, McGraw-Hill, 1974.